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전시 연출 밑그림 나왔다!

전시 연출 및 회장 운영·이벤트 대행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완도군은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전시 연출 및 회장 운영·이벤트 대행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의 미래라는 주제로 5월 2일부터 7일까지 완도 해변공원과 완도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박람회는 '기후 위기 대응'과 '2050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 해조류산업의 미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산업형 박람회로 치러진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범우 부군수를 비롯해 부서장, 용역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시 연출 콘셉트 ▲전시관 등 콘텐츠 구현 ▲박람회장 조성·운영 ▲개막식 및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추진 계획이 보고됐다.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장에는 해조류 이해관과 주제관, 산업관, 홍보관 등 4개의 전시관이 마련되며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기존 완도해조류센터를 '해조류 이해관'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이해관'과 '주제관'에는 '바다의 위기! 바다가 보내는 신호, 기후 리더 해조류'를 테마로 해조류의 가치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해조류 탄소 흡수원에 대해 몰입형 영상과 인터랙티브로 구현할 계획이다.

저탄소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개막식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대나무 바다낚시, 해조류 체험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식·가공·식품 등 해조류산업 분야별 기업과 국내외 바이어 간 수출 상담회와 해조류 국제 학술 심포지엄도 개최되며, 박람회 기간 중 '장보고 한상 세계 대회'와 법정 기념일인 '바다식목일' 기념행사도 열린다.

박람회추진단에서는 세부 실행 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범우 부군수는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군이 해조류산업과 해조류 블루카본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장흥군-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맞손

장흥군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농업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공공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안정성·추진력을 확보하고, 육성지구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이 추진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14억 원(지특 100억 원, 도비 30억 원, 군비 84억 원, 민자 800억 원)을 투입해 관산읍 삼산간척지 일원에 스마트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하고 연계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첨단 농업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공사 발주 및 감독, 사업관리 등 조성사업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그간 태양광 발전 집적화 단지와 연계한 스마트팜 조성 업무협약 체결, 스마트농업 정책 자문 및 협의,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 등 사전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위수탁 협약 체결로 사업 추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농업 모델 구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농 유입 촉진과 지역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9일 퇴원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이력」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지역 내 급성기 의료기관인 화순고려병원, 화순중앙병원, 화순성심병원이 참여해 의료·요양·통합돌봄 연계·이력 체계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화순군과 각 의료기관은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협

화순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이력 협약 체결

고려·성심·중앙병원과 협력... 돌봄 공백없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분야별 서비스 제공, 관리, 계획, 현황 등 필요한 자료 공유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기타 협력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병원 치료 이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대상자에게 방문의료,

건강관리, 가사지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협약은 치료 이후 돌봄이 단절되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복지기동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 자원을 적극 연계해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군은 앞으로도 의료·요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화순/김중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카드 개설 협약 체결

담양군이 지방보조사업자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담양MG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카드 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담양MG새마을금고와 '보통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전용계좌 및 카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에 군 금고인 농협과 광주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신속히 반영해 새마을금고에서도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담양/이종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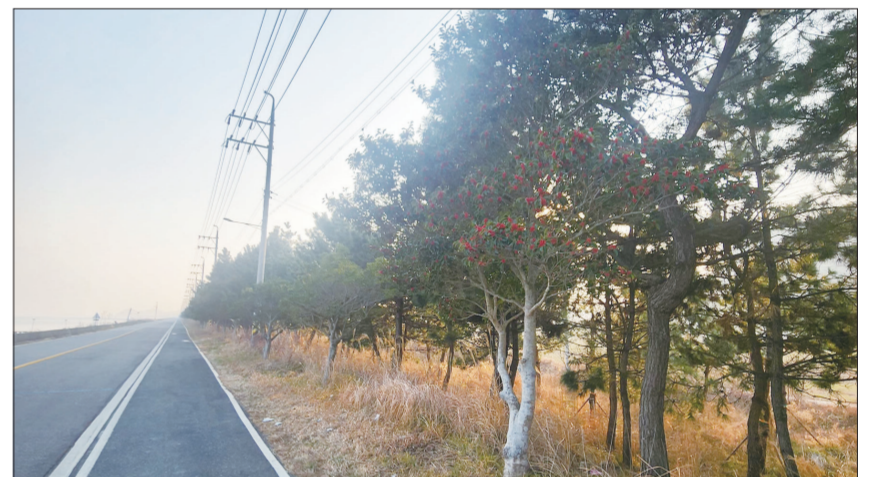
고흥군, 공직자 공동주택 '홍양관 2호' 입주식 개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일 신규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직자 공동주택 '홍양관 2호' 입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양관 2호'는 지난해 조성한 '홍양관 1호'에 이은 두 번째 공직자 공동주택이다. 신규 공무원이 고흥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거 부담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읍 서문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홍양관 2호'는 지상 5층 규모로, 신규 공무원 11세대가 입주한다. 특히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해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과 기본 가구를 모두 갖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강진 만덕호 방풍림, 힐링 명품 가로숲길로 재탄생

강진군이 도암면 만덕호 일원 방풍림 구간에 불두화를 식재해 경관과 기능을 겸비한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한다.

만덕호에는 방풍림으로 바닷바람을 막아주기 위한 해송과 겨울에 빨간열매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미적 효과를 위한 만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이번 사업은 기존 방풍림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경관을 한층 품격 있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만덕호 내 도로와 자전거길 이용객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하는 특화 가로숲길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군은 방풍림 구간 약 2.8km에 불두화 약 7,000주를 식재할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Goheung Spaceship Terminal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2026.5.2. (토) - 5.5. (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